정응균 '旅程(여정)'

수묵으로 만든 자유로운 조형

정응균 개인전 '람바의 빛'

내일부터 G&J 광주-전남갤러리

전통 문인화 현대적 이미지 접목

발묵·파묵으로 표현된 희망의 빛

먹의 농담에 따라 형성된 사군자를 기반으로 제작된 전통 문인화와 현대적 이미지를 접목해 새로운 문인화 세계를 이끌고 있는 우정 정응균 작가 개인전 '람바의 빛'이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인사동 G&J 광주-전남갤러리에서 열린다.

문인화는 모두 골기(骨氣)있는 일획을 구사하고 기운이 생동한 획으로 만상의 변화를 창작해 예술세계를 전개한다. 일획의 선이란 만물의 형상을 표현하는 변화무쌍한 선으로 문인화가 성립되는 미학이다.

작가는 45년의 시간 동안 문인화를 탐구하며 작품 활동을 펼쳐왔다. 법고창신(法古創)하면서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조형미를 탐색하는데 전력투구했다. 또한 사군자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문인화의 필법과 화법에서 탈피해 창의적인 조형미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능숙한 필치에다 속도감과 힘이 실림으로써 일반적인 문인화에서 느끼지 못하는 감흥이 일어난다.

정응균 작가

'생명의 약동'은 숲이 숨 쉬는 공간은 자유, 평화로 인식하고 이 믿음에 희망과 번영의 꿈을 담아 기쁨의 에너지로 표현했다. 매혹적인 열정의 빛은 또 하나의 빛이 아닌 전혀 새로운 '람바의 빛'이다.

'해탈'은 현세에서 삼라만상과의 만남과 헤어짐 속에 찾아오는 인간의 백팔번뇌 사슬, 그 사슬을 끊고자 하는 열망을 풍경 이미지와 반야심경 글씨로 만들었다.

'대숲 속에서'는 대숲에서 명상하는 가운데 감정의 파노라마와 빛의 파생을 봤다. 그 강렬한 힘은 희망, 기쁨, 행복 그리고 사랑의 결정체였다. 수많은 대나무 잎을 치면서 선과 선이 결합하고, 그 결과 수묵은 발묵과 파묵으로 빛의 힘이 뿜어져 나왔다.

정응균 작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만나는 감성을 순간 포착해 물과 묵의 물성적 효과로 작품을 만들었다. 추구했던 스토리와 형상을 춤을 추듯 일필휘지로 그려 놓치고 싶은 않은 감성을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작가는 현재 ㈔한국문인화협회 부이사장, ㈔한국미술협회 문인화분과 초대작가, 우정·정응균문인화연구실 원장으로 활동중이다.

/최진화 기자

문체부,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 신청 접수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전국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로 9년째인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 제도'는 직장 내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매년 독서 친화 경영을 하는 기업과 기관의 우수 사례를 인증하고 혜택을 주는 제도다. 2014년 20개 기업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131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받은 기관과 기업에는 문체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기관별 맞춤형 독서경영 컨설팅을 제공한다.

독서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상위 16개 기관·기업에는 10월 시상식을 통해 문체부 장관상 등을 포상한다. 올해 새롭게 인증받은 중소기업에는 소정의 도서 구입비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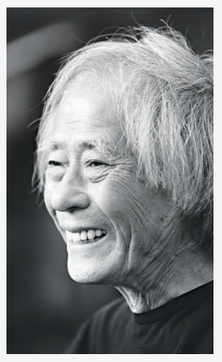
신청 기관 자가진단표와 이에 대한 현장 확인, 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0월에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독서인(IN)' 홈페이지(www.readin.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진화 기자

김보현, 마지막 시간들

10월 28일까지 조선대 미술관



한국 회화 1세대 김보현 작가(사진)의 주요작품을 다시한번 살펴 볼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조선대학교 김보현&실비아올드 미술관은 오는 10월 28일까지 고 김보현 8주기 특별전 '김보현, 마지막 시간들(2010-2014)'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김보현과 그의 부인 실비아 올드 삶의 마지막 시기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망 전 기록을 담은 전시다.

한국 회화 1세대인 김 작가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초대교수를 역임했다. 1955년 미국으로 건너가 현대미술의 메카로 불리는 뉴욕에서 디아스포라로서의 자유를 향한 삶의 모습을 작품 세계에 담으며 뉴욕에서 눈을 감았다.

전시는 다큐멘터리 전문 김진홍 작가가 2010~2014년 촬영한 초상 사진과 김보현 작가의 회화 작품을 함께 만나 볼 수 있다.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로 조선대학교 본관 1층에 위치한 김보현&실비아올드 미술관에서 관람 가능하다. 주말 및 공휴일은 휴관한다.

조송식 미술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잊혀져 가는 김보현 작가의 모습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한국화단에서 조명되지 못한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나라 기자

상반기 국내 미술시장 규모 5,329억

아트페어 전년대비 165% 급증

'조각투자' 900억대 성장 전망

국내 미술시장이 경기 둔화에도 아트페어 호황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까지 성장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경)가 운영하는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상반기 미술시장 규모는 약 5,329억 원으로 집계됐다.

예경이 상반기 기준으로 집계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지만, 지난해 연간 규모(9,157억 원)의 58% 수준을 달성했고 주요 경매와 아트페어가 하반기에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작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예경은 '조각투자'인 분할소유권 시장을 약 310억 원으로 추정해 이를 포함하면 전체 시장 규모는 약 5,63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경매는 지난해 상반기(1,448억 원)보다 0.1% 증가에 그쳤고 지난해 하반기(1,793억 원)와 비교하면 19.1%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시장에서 경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5.4%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27.2%로 낮아졌다.

반면 상반기에 개최한 아트페어 6개의 작품 판매 금액은 1,42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지난달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아트페어 대구 2022' /연합뉴스

보다 165.6% 급증했다. 관람객도 36만3,00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72% 늘었다.

아트페어 비중은 지난해(16.9%)에서 올해 상반기 26.8%로 대폭 상승해 경매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했다.

특히 올해 9월에는 국내 최대 아트페어인 '키아프 서울'이 세계적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과 동시에 개최될 예정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경은 상반기 미술품 분할소유권 시장이 약 310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545억 원)의 57% 수준을 달성했다며 올해 연간으로는 9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운영 중인 조각투자 플랫폼 4개 사의 2018년 이후 지금까지 누적 공동구매액은 963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